

영광군, 글로벌 e-모빌리티 허브 ‘도약’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집적화 성과

인도네시아 MOU·동남아 판로 개척

원스톱 지원·부품 시생산센터 구축

영광군이 50만평 규모 전기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글로벌 e-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2014년부터 e-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난 10여년간 3천500억원 규모의 국고 사업을 유치하고 50만평 (165만2천892㎡) 규모 전기자동차 산

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유치, 지식산업센터 건립,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했고, 최근에는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e-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은 R&D, 인증, 기업지원, 인력양성까지 ‘One-Stop 지원체계’를 완성해 대풍EV·HB·SK시그넷 등 22개 e-모빌리티 기업을 전기차산업단지에 집적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산업협회(AISMOLI)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과 4차 MOU를 체결해 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개척단 운영,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 등 수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광군대마산단 내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를 지난해 5월 준공·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소량·다품종 생산체계를 갖춰 중소

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차 등 국내·외 기업 수요를 맞춤 지원한다.

2022년 4월 협동조합을 출범시켜 공동 생산·공동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했으며, 국산화율을 높여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2025년을 향한 목표도 명확하다.

영광군은 해외시장 개척단 확대, 해외 전시회 및 바이어 연계, 맞춤형 기술 지원 등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 확보, 외국인 인력 유치, 산업 생태계 활성화까지 연결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모빌

리티 총돌 안전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인체터미·이동대차·측면충돌 영상분석 장치 등 첨단 장비를 추가 구축해 해외에 의존하던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부품기업 유치·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제 군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글로벌 e-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할 준비가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일자리·인프라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e-모빌리티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출장 중입니다”…무안군, ‘깜깜무소식’ 민원 부실 대응 논란

7차레 통화…출장·조퇴 사유 회신 無

郡 관계자 “모든 민원에 응답” 해명

무안군 옹릉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촉된 사건과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이를 외면한 무안군청의 부실 대응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해촉, 이에 대한 부당함과 관련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무안군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민원 접수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7차례의 통화를 시도한 결과 ‘출장’, ‘조퇴’ 등의 사유로 모두 무산됐다. 수차례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답변은 없었다.

취재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출



장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담당자의 실제 출장은 단 1회뿐이었으며, 나머지 6회의 부재는 근무지 이탈 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민원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출장 중’이라 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은 “연말과 연초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됐다”며 “행정이 아예 응답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듯 했고 답답한 마음에 신도시지원단을 1차례 직접 찾아가 호소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다.

군청 담당 공무원은 현재 출산 휴직 중으로 담당 팀장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 “모든 민원에 응답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내역과 민원인의 진술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김상호 기자



나주시는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한국전력소자산업協 호남사무소 유치

나주시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를 유치하고 전력반도체 부품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전력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전남도, 캔텍, 소자협회, ㈜디시오 등 유관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 소자란 전기기기의 전력 변환, 제어, 안정화 등을 수행하는 전력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의미하며 고효율·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전기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는 2016년 설립돼 부산

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내 70여개 전력 소자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전문 산업단체다.

나주시는 그간 기후 및 에너지신산업 인프라 집적지로서 직류(DC)산업,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차제 국산화 허브 조성을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남도와 함께 협회 유치를 제안했다.

이번 호남사무소 유치는 협회가 호남권 최초로 지역 거점을 둔 사례로 에너지수도 나주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협회는 앞으로 캔텍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전력 소자 부품 국산화 정책 제언, 기술 콘퍼런스, 기업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전력반도체 팹리스

기업 ㈜디시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캔텍 내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기술 협력, 투자 연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의 실질적 첫걸음을 뒀다.

이어 열린 기술교류회에는 전력반도체, 에너지,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분야별 최신 기술과 산업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사무소 개소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호남권 최초로 기쁘다”며 “전력반도체 부품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기업 유치, 인재 양성, 정책 및 행정 지원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 중심을 나주가 잡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 하굿둑 개방 촉구

해수 유통·생태계 회복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을 촉구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농업용수 공급과 간척지 개발, 교통 연결을 위해 건설됐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 기능은 빛을 잃었고, 거대한 콘크리트 독이 물길

을 막아 수질 악화와 어족 자원 고갈 등 심각한 생태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하굿둑을 개방해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성 회복만이 영산강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 하굿둑은 2022년 수문 1개 상시 개방 이후 연어, 실뱅쟁이 등 회유성 어종의 이동과 하구 생태계 회복이 확인됐고, 금강 하굿둑도 해수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

산강도 더 이상 개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 정부의 댐 건설 정책을 비판하며 “새 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보 철거, 수문·하굿둑 개방 등 재자연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연합은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 유통 ▲수질 독소 및 녹조 모니터링 강화 ▲전국 단계 연대 통한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추진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진군 캐릭터 ‘청담·청이·국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수국길축제 기념…내달 7일까지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24일 “오는 7월7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강진군 공식 캐릭터 ‘청담·청이·국이’ 이모티콘 16종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모티콘은 오는 27-29일 열리는 ‘2025 강진수국길축제’를 기념해 무료로 배포되며, 강진의 대표 유산인 청자와 아름다운 수국을 모티브로 개발된 캐릭터들이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담아,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진군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과 자연미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 세 가지 관광홍보 캐릭터를 만들었다.

먼저 ‘청담’은 강진의 대표 유산인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청자 형태의 몸체에 분홍색 불터치와 곱슬 앞머리가 특징이다.

그리고 둥글고 매끈한 청자 항아리를 모티브로 뚜껑을 쓰고 아기 얼굴이 포인트인 ‘청이’와 머리에 커다란 수국 꽃을 머리에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캐릭터의 ‘국이’까지, 각각 강진의 전통과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강진군청’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선착순 2만명까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이모티콘 무료 배포는 축제와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로, 온라인을 통해 강진의 관광매력을 널리 알리고 자연스럽게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비대면

홍보 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다.

백경자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분들이 청담·청이·국이 이모티콘과 함께 강진수국길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고, 축제 현장도 꼭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다양한 세대와 채널을 아우르는 관광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홍보 콘텐츠를 통해 강진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 초등학교, 뉴질랜드 어학연수 떠난다

4주간 현지 학교 수업 등

신안군은 24일 “전날 신안군가족센터 교류소통실에서 ‘2025년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회에는 이번 연수에 최종 선발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과 학부모 30명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어학연수는 7월23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Elm Park School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현지 정규수업과 함께 영어 집중 교육(ESOL),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국제적

인 감각, 자율성, 문화적 포용력을 키울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중 신안군 내 중학교에 진학해 졸업하겠다는 서약을 한 학생이다.

신안군은 2008년부터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제약 속에서도 아이들이 국제 감각과 자율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연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함평천지물’ 모바일 앱 출시…이벤트 다채

회원가입 시 쿠폰 지급

함평군은 “최근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기반 강화를 위해 공식 쇼핑몰 ‘함평천지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정식 출시를 기념해 앱 설치 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설치하면 쿠폰이 팡팡!’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함평천지물’ 앱은 직관적인 화면과 실시간

기획전, 이벤트 소식, 푸시 알림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국제식품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에서 브로셔를 대체하는 홍보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모바일 앱 출시를 함평농산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농가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